

여론조사꽃 제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5_01

ARS+CATI

제35차 ARS조사

제20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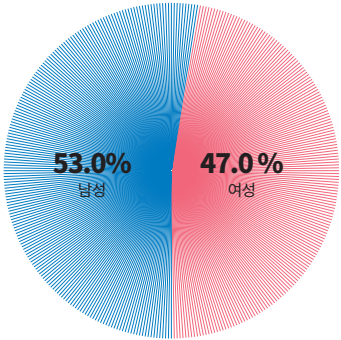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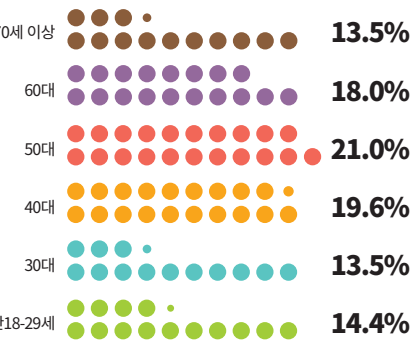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응답률	3.4% [총 통화시도 29,748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8일 ~ 4월 29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성별	남성	532	53.0	498	49.7	0.94
	여성	471	47.0	505	50.3	1.07
연령	만18-29세	144	14.4	166	16.6	1.15
	30대	135	13.5	151	15.1	1.12
	40대	197	19.6	181	18.0	0.92
	50대	211	21.0	196	19.5	0.93
	60대	181	18.0	170	16.9	0.94
	70세 이상	135	13.5	139	13.9	1.03
	서울	197	19.6	188	18.7	0.95
지역	인천·경기	317	31.6	320	31.9	1.01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5	10.5	0.95
	광주·전라	96	9.6	97	9.7	1.01
	대구·경북	100	10.0	99	9.9	0.99
	부산·울산·경남	144	14.4	150	15.0	1.04
	강원·제주	39	3.9	44	4.4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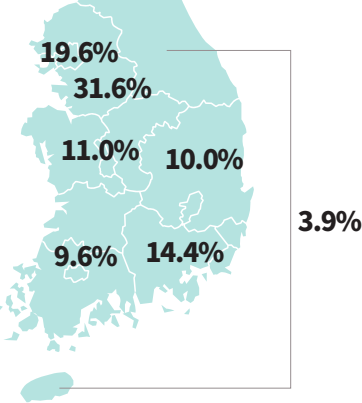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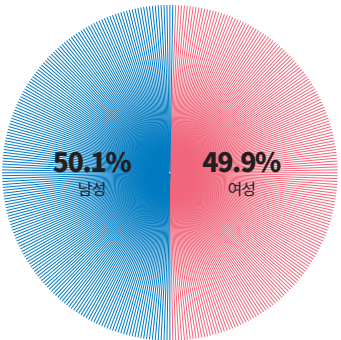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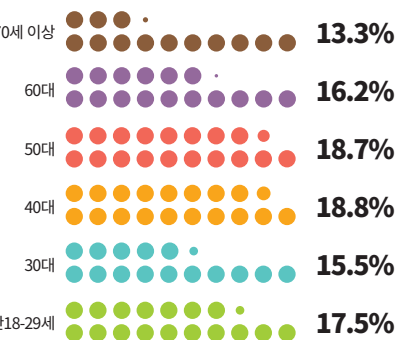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1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7.5% [총 통화시도 5,844명]
조사기간	2023년 4월 28일 ~ 4월 29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21	100.0%	1,021	100.0%
성별	남성	512	50.1	507	49.7	0.99
	여성	509	49.9	514	50.3	1.01
연령	만18-29세	179	17.5	170	16.7	0.95
	30대	158	15.5	151	14.8	0.96
	40대	192	18.8	187	18.3	0.97
	50대	191	18.7	199	19.5	1.04
	60대	165	16.2	172	16.8	1.04
	70세 이상	136	13.3	142	13.9	1.04
	서울	195	19.1	192	18.8	0.98
지역	인천·경기	324	31.7	325	31.8	1.00
	대전·세종·충청	106	10.4	108	10.6	1.02
	광주·전라	100	9.8	99	9.7	0.99
	대구·경북	100	9.8	100	9.8	1.00
	부산·울산·경남	155	15.2	152	14.9	0.98
	강원·제주	41	4.0	45	4.4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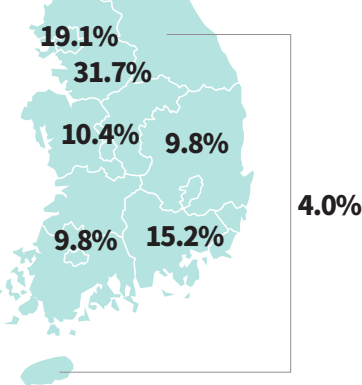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에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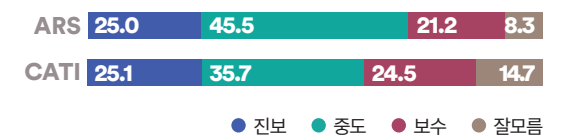
여론조사꽃 제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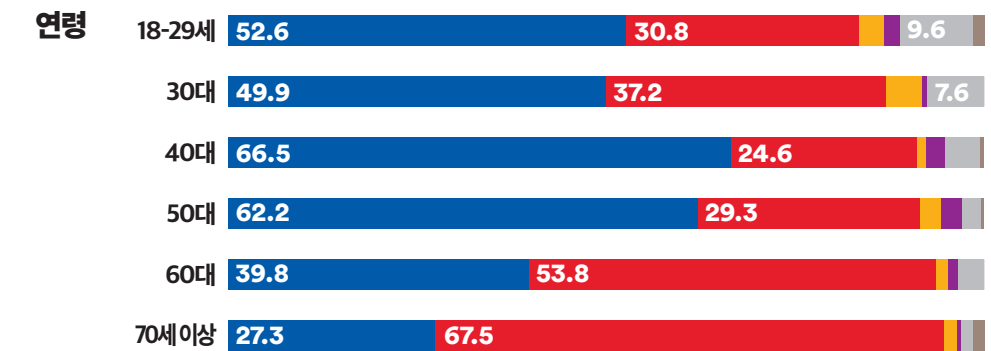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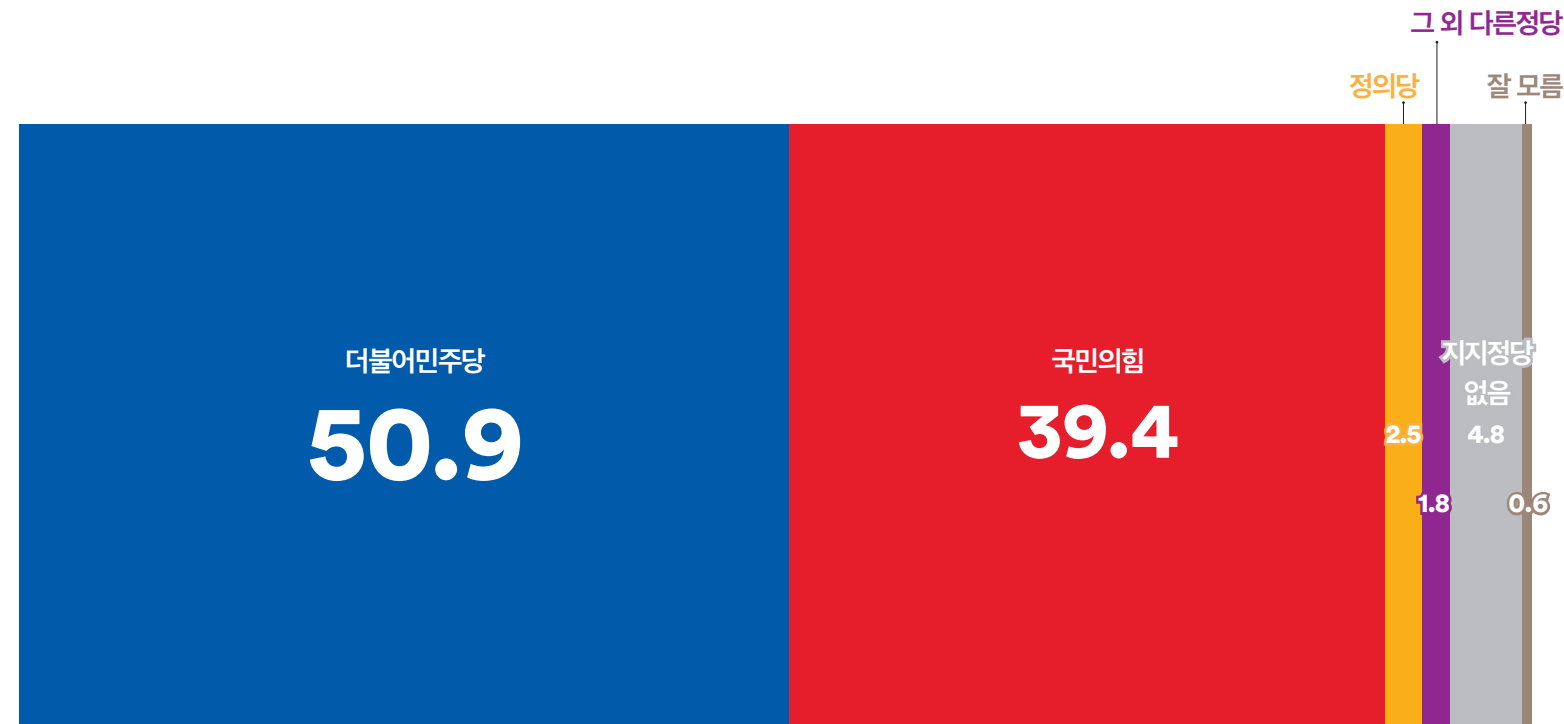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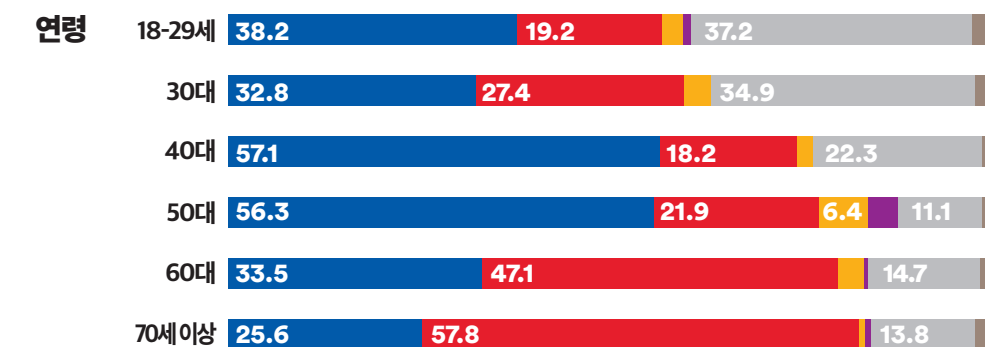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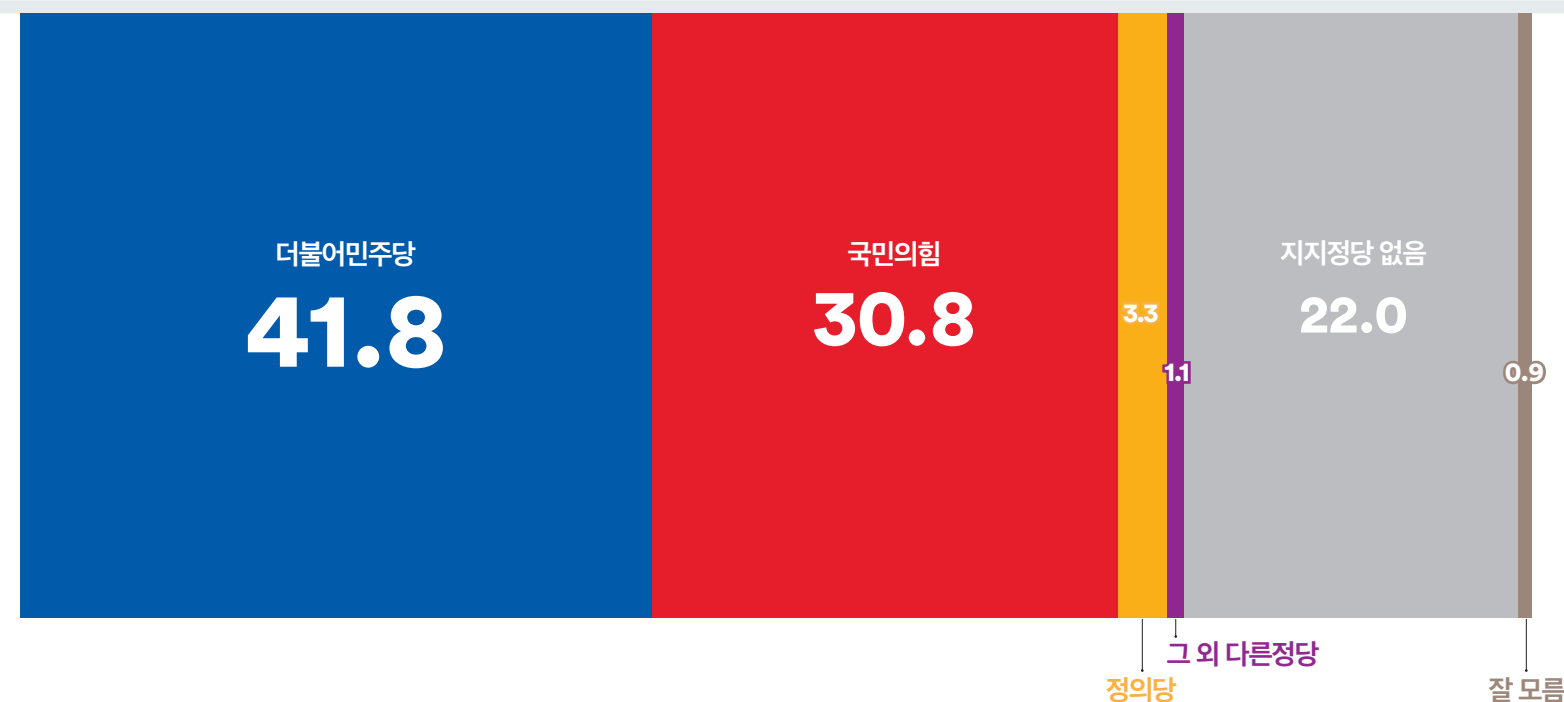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8%p 하락, 국민의힘 4.3%p 상승(격차 11.5%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4%p 하락, 국민의힘 0.4%p 하락(격차 11.0%p)

두 조사 모두 모든 성별, 50대 이하 응답층,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60대이상 응답층과 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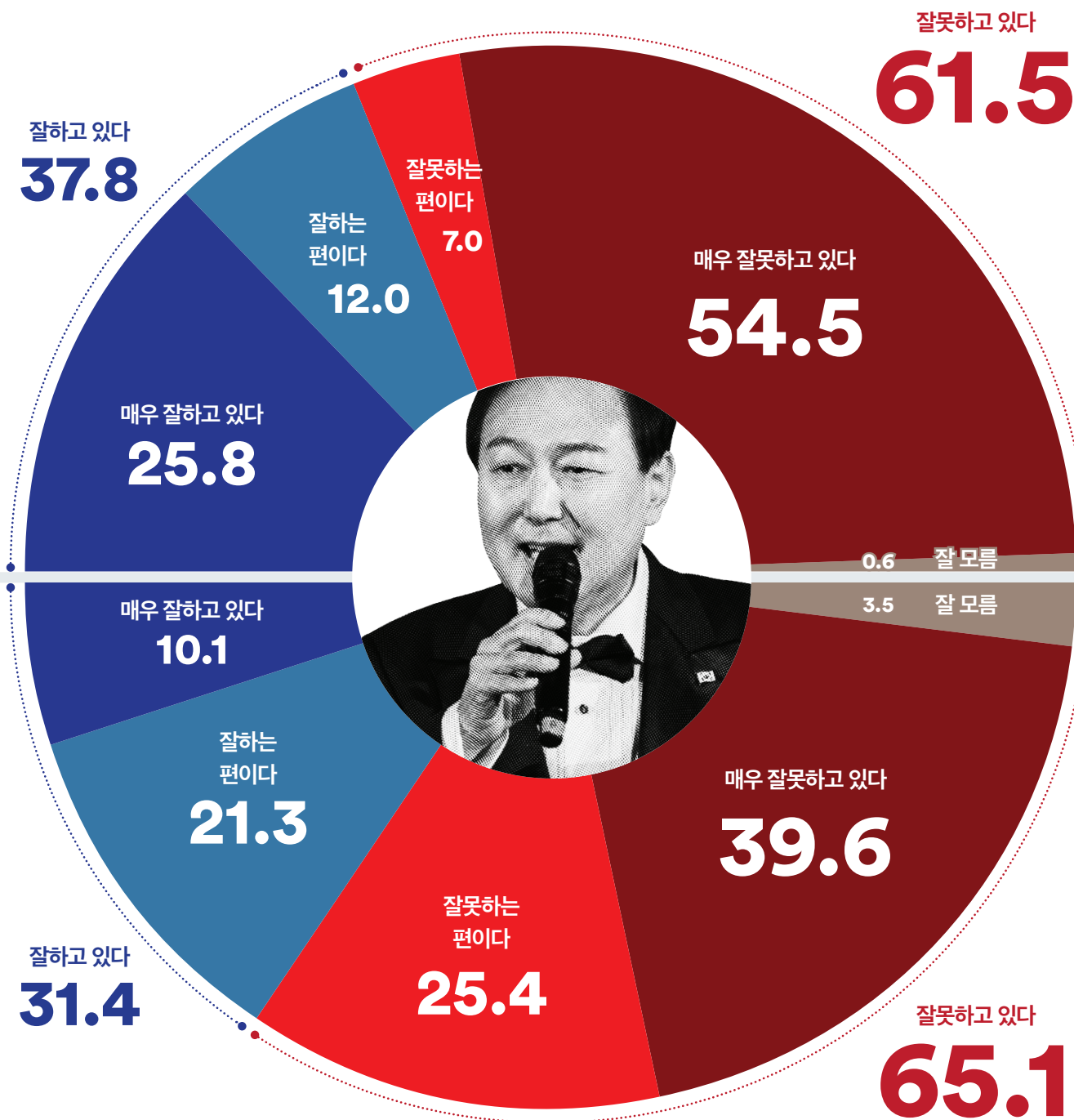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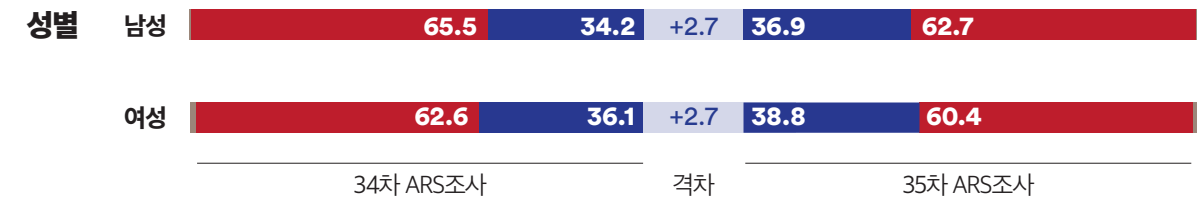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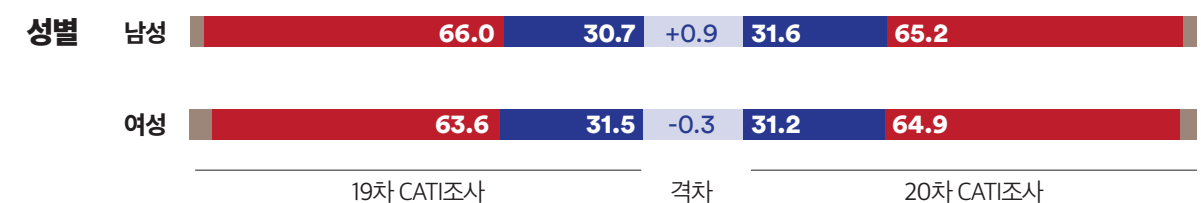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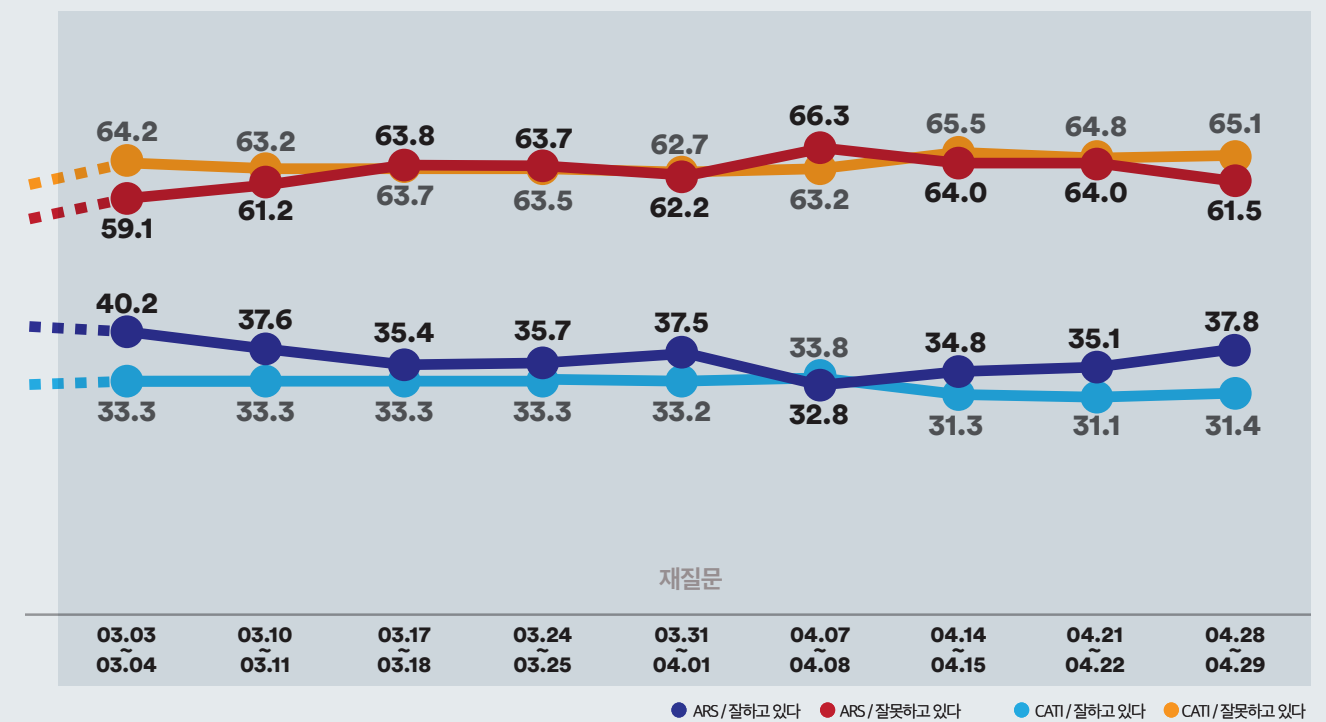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7%p 상승, 부정평가 2.5%p 하락 (격차 23.7%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3%p 상승, 부정평가 0.3%p 상승 (격차 33.7%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앞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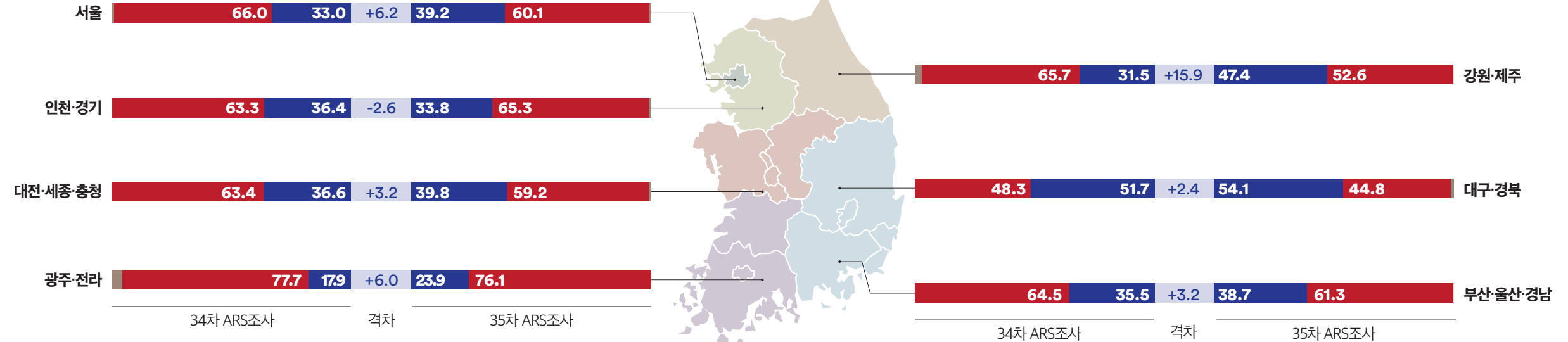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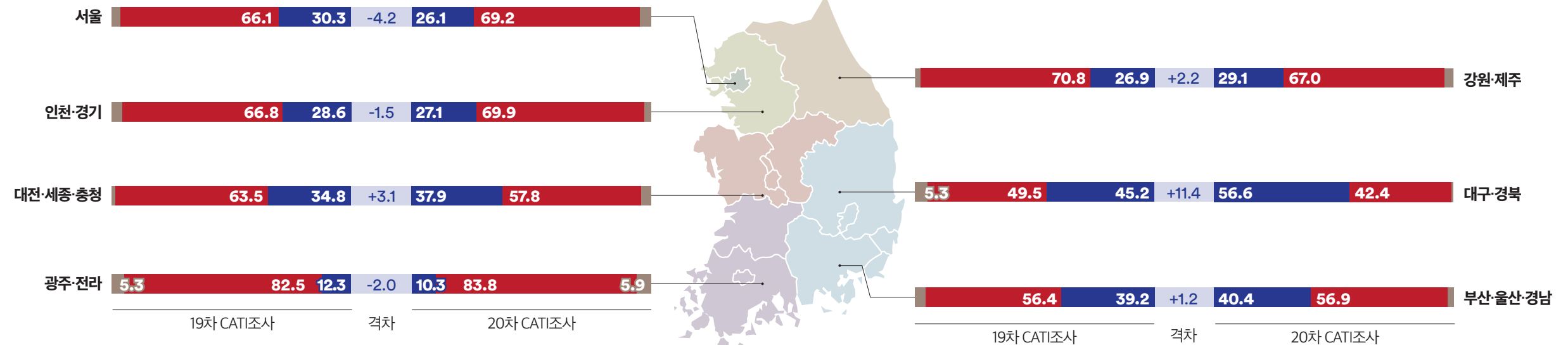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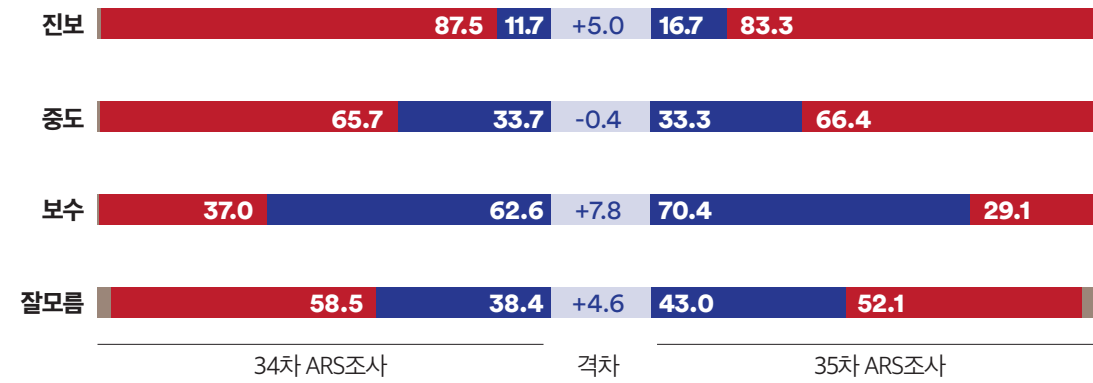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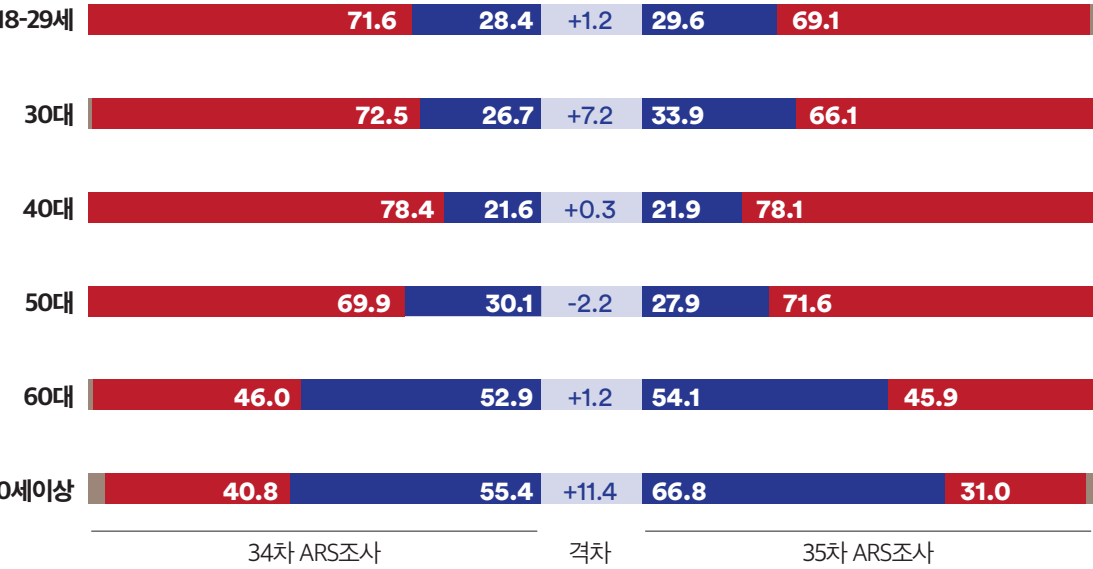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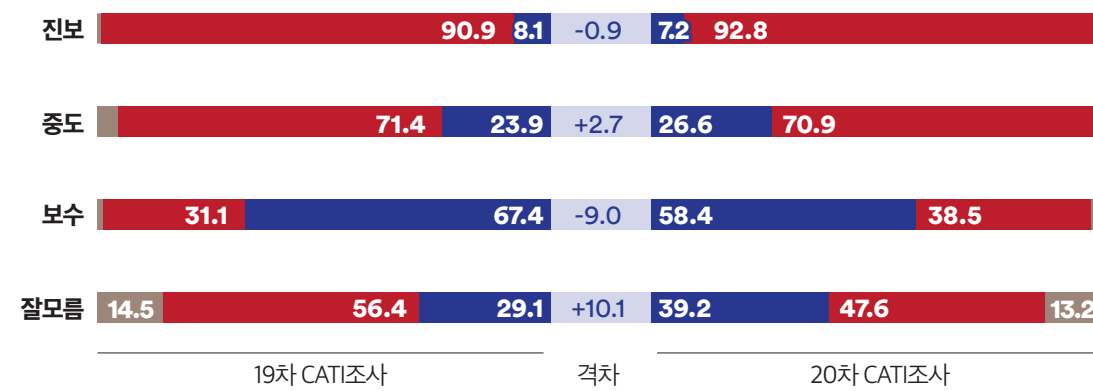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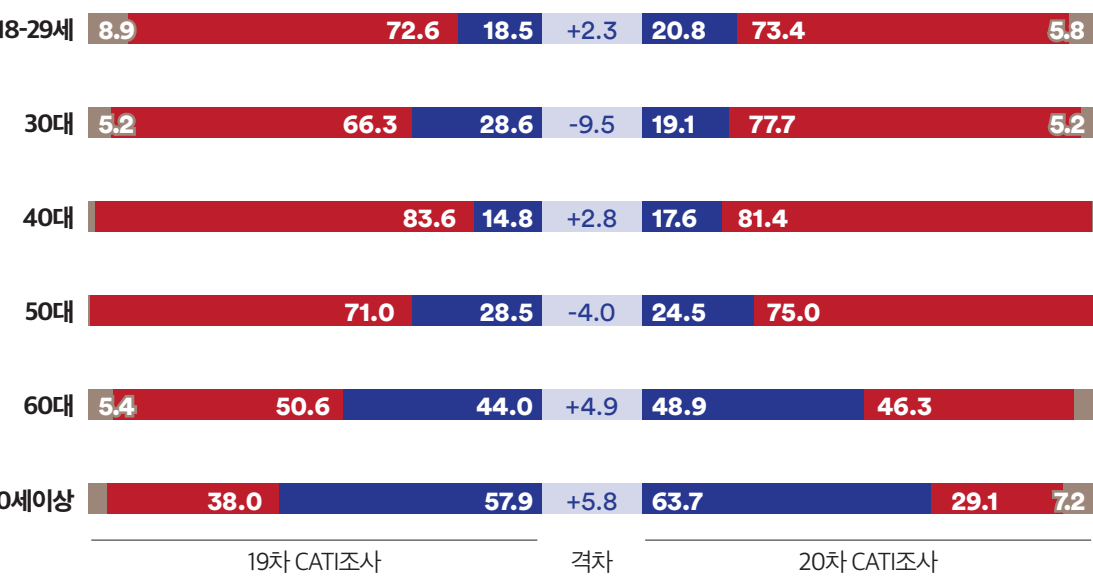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미국 국민 방문 / 한-미 정상 회담

ARS & CATI / CATI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주어를 삭제하고 원문을 공개한 대통령실

대통령 배우자에게 보고된 넷플릭스 한국 투자 계획

워싱턴 선언 평가

한미정상회담 평가

윤 대통령이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방문 전 진행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인터뷰 원문에서 주어진 ‘저는’을 삭제 한 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방미의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4년간 K 콘텐츠에 3조 3000억 원)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보고사항을 부인도 보고받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함께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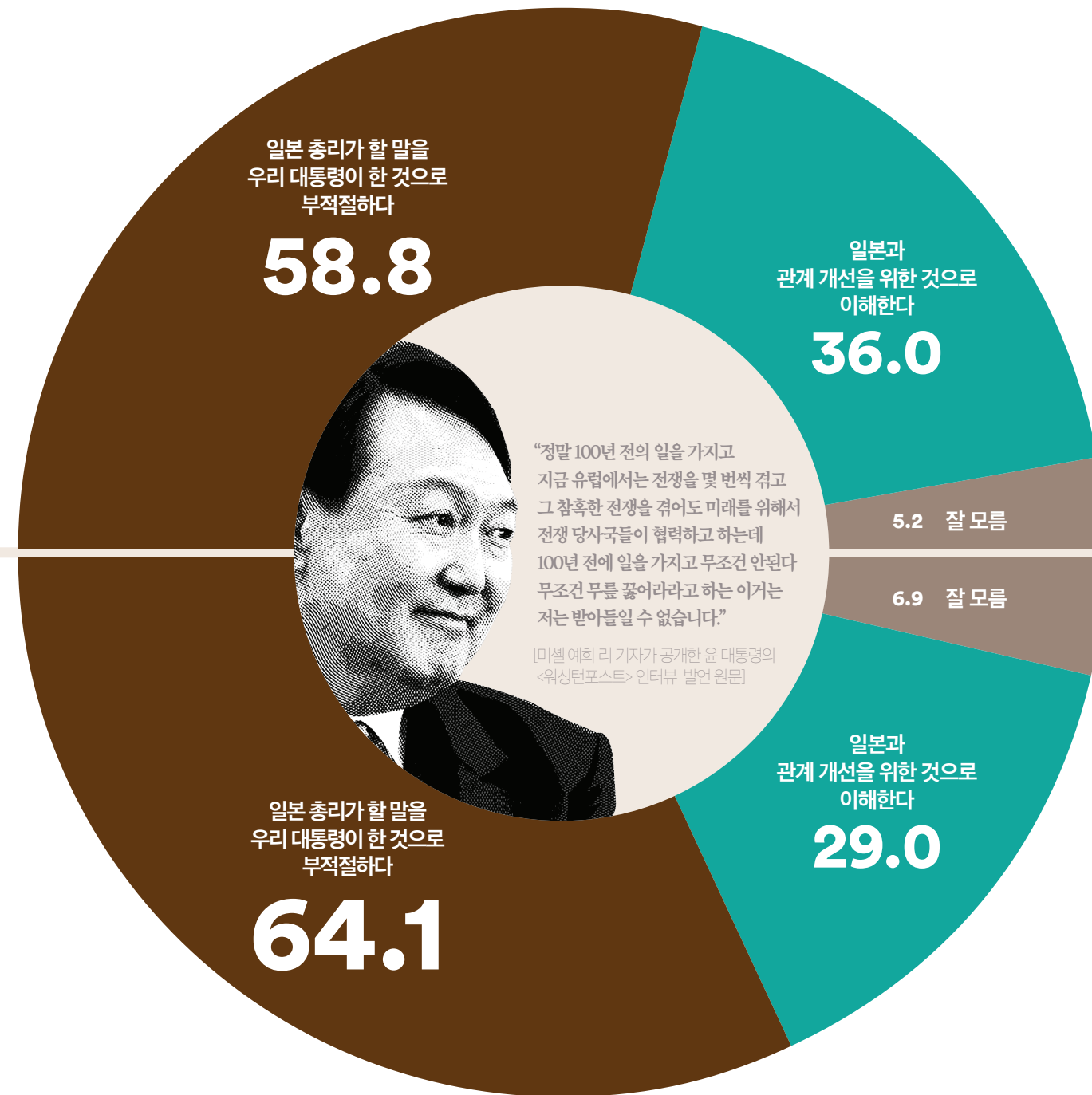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Q. 윤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이 발언의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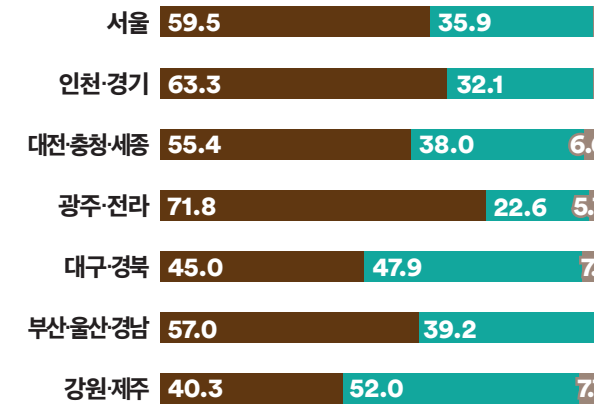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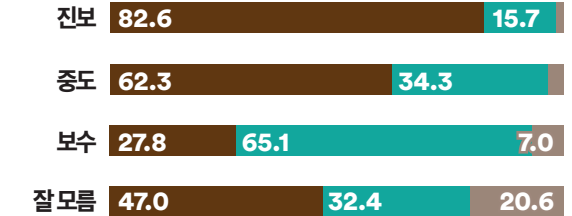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정도(CATI는 6명 이상)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50대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은 ‘이해한다’란 응답이 우세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무당층(ARS 61.5% / CATI 67.0%)과 중도층(ARS 62.3% / CATI 69.5%)에서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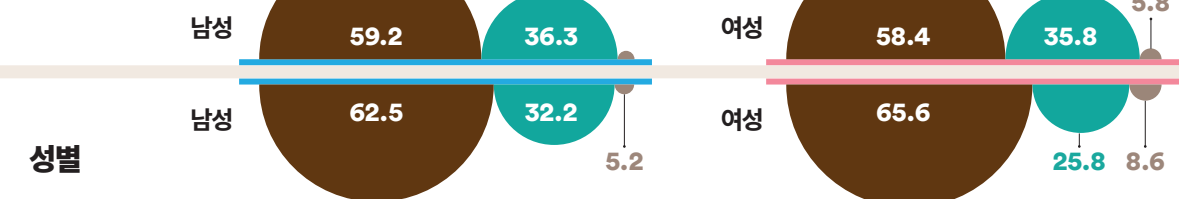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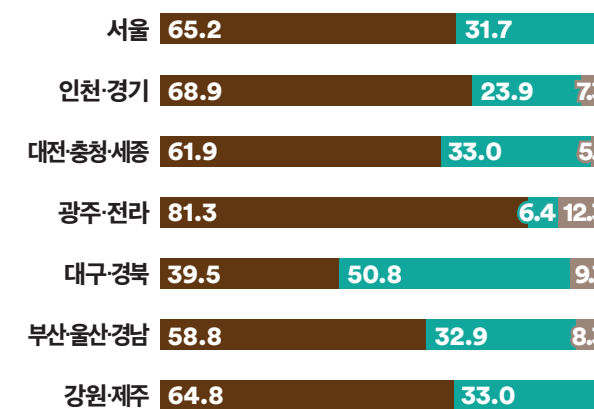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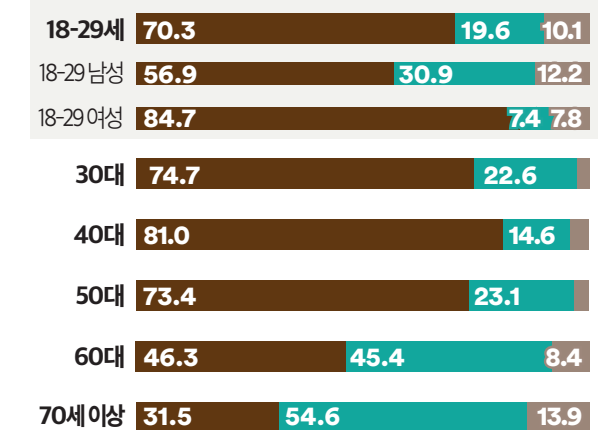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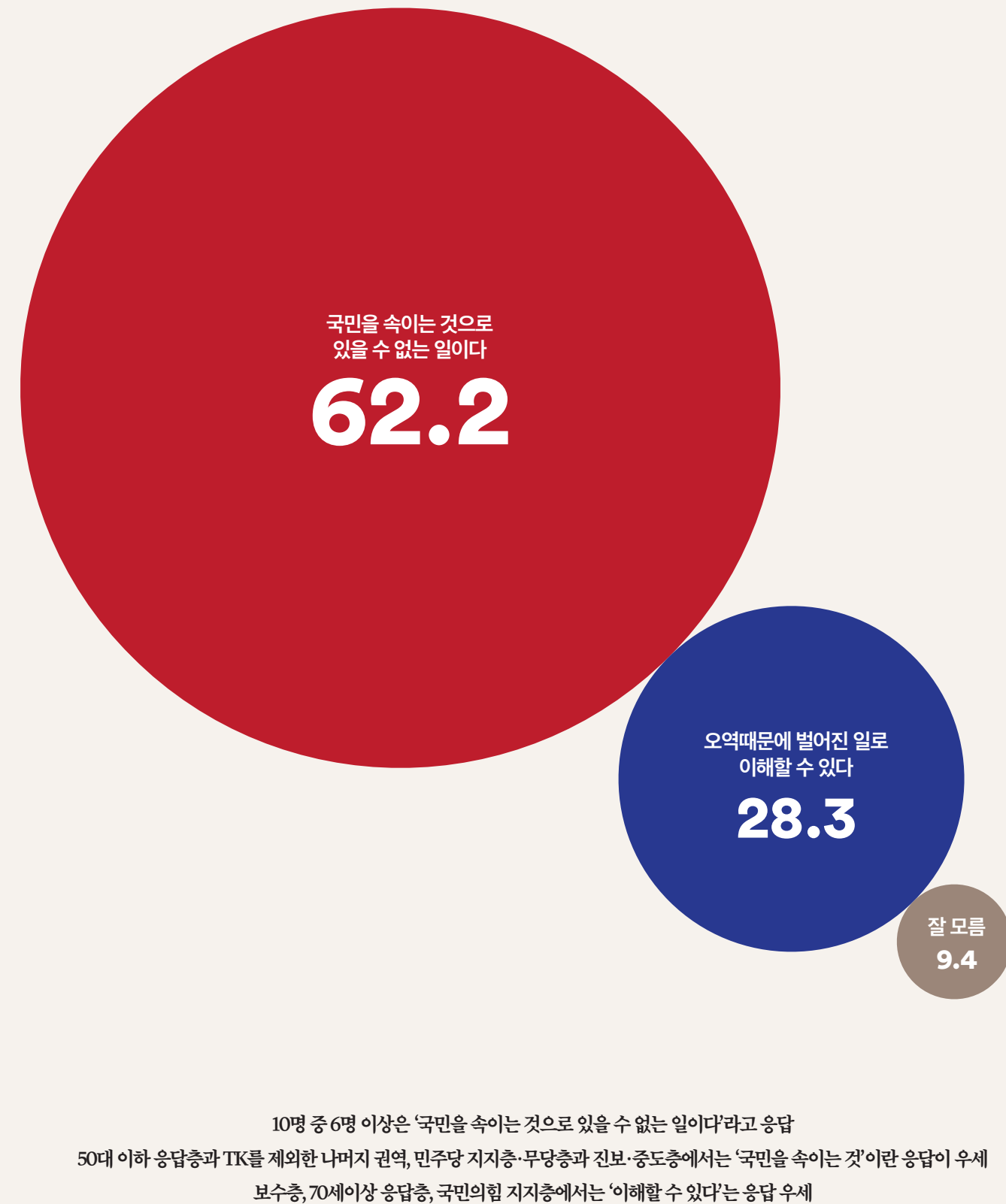
부적절하다 | 이해한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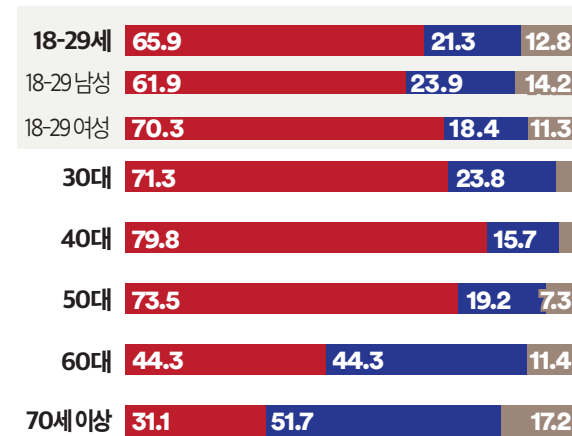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주어를 삭제하고 인터뷰 원문을 공개한 대통령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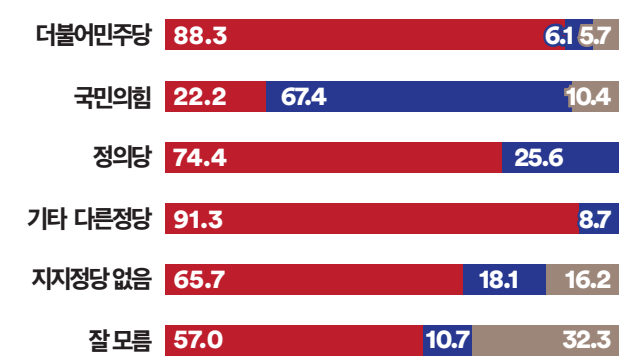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저는”이란 주어를 삭제하고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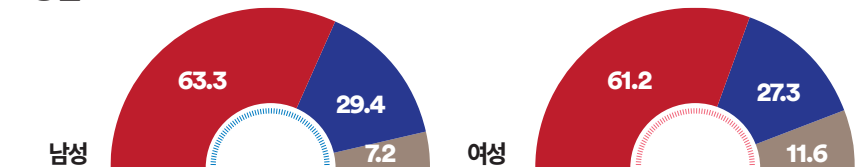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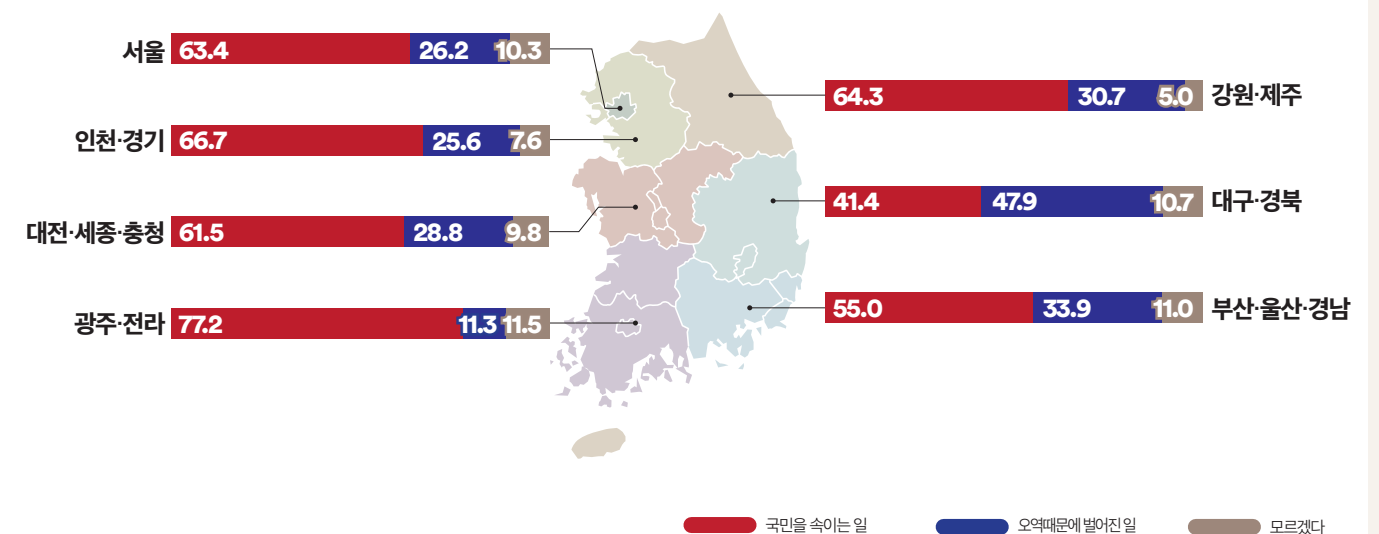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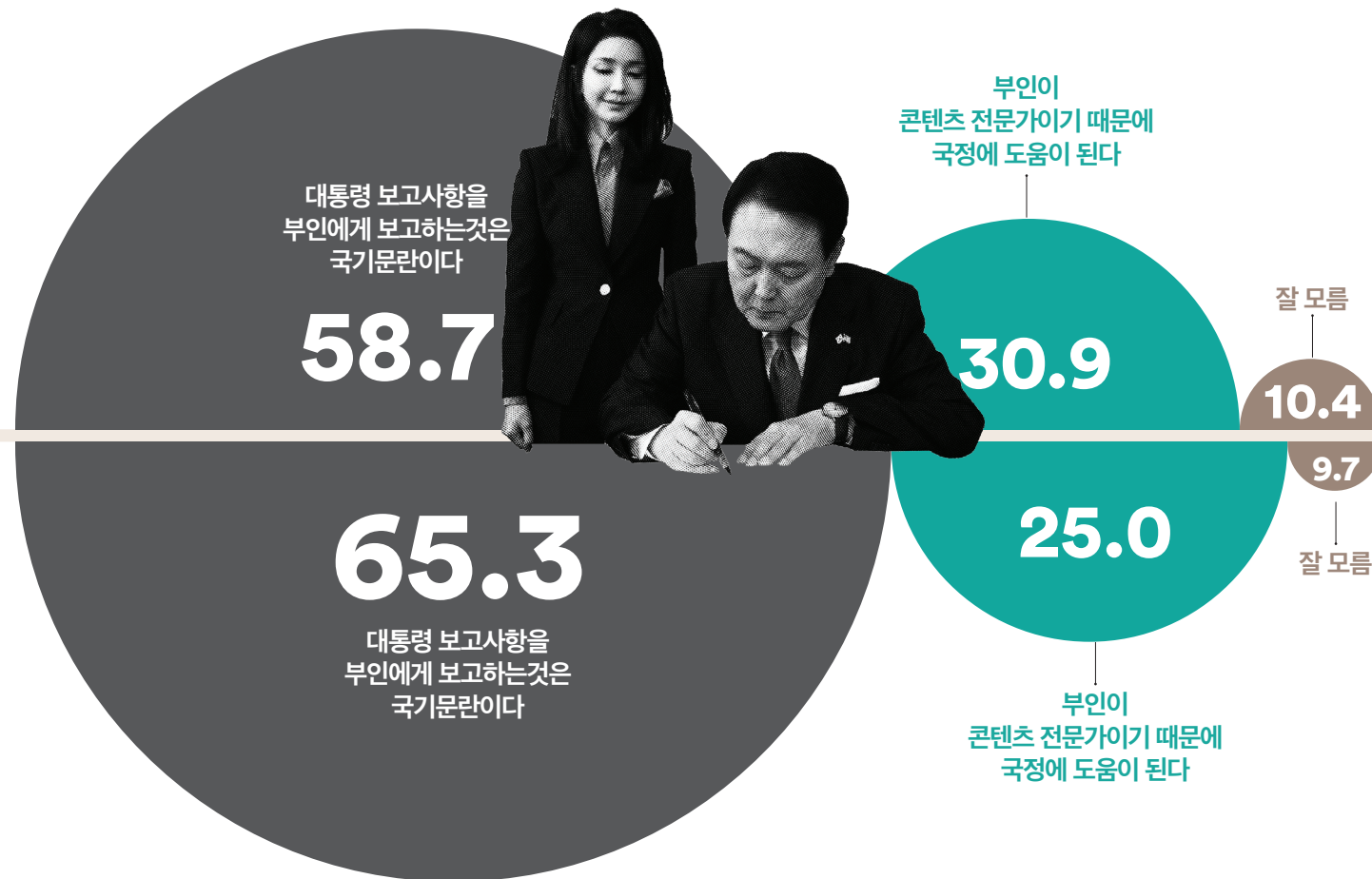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 배우자에 보고된 넷플릭스 한국 투자 계획

Q. 대통령실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중간 보고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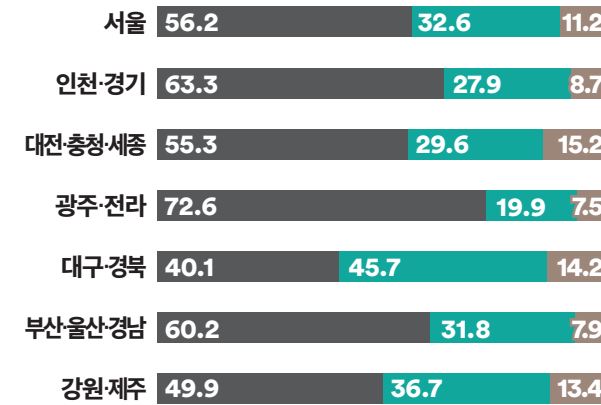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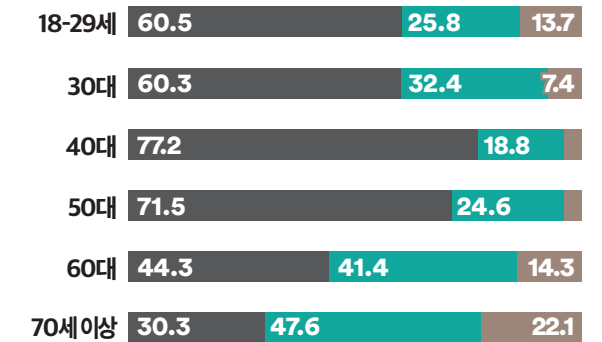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국기문란'이란 응답이 앞섬
'국기문란'이란 응답은 CATI 조사에서 ARS 조사 대비 6.6%p 더 높게 나타남
5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국기문란'이라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국기문란'이라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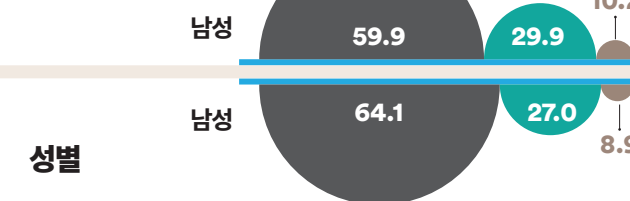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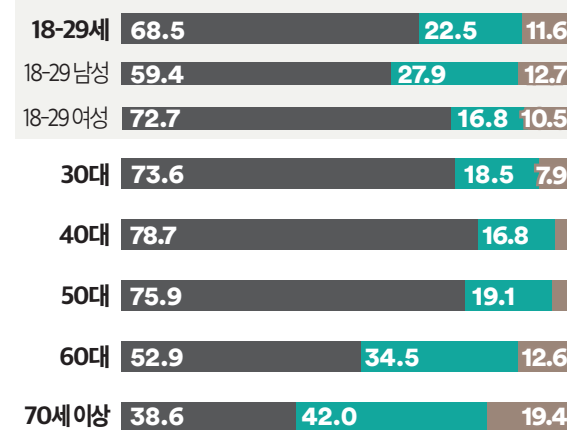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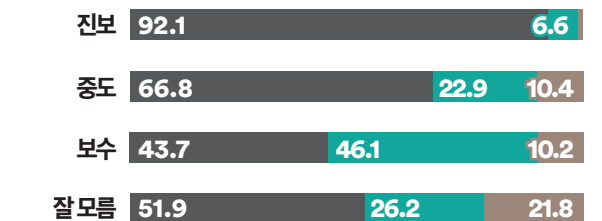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이념성향



국기문란이다 국정에 도움된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워싱턴 선언 평가

Q.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반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 중]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 중]

핵전쟁 발발 시
북한을 초토화 할 방안이므로
확장 억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19.9

핵전쟁은
남북 모두의 멸망을 의미하므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

75.4

잘 모름
4.7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전쟁 억제 계획이 우선’이란 응답이 우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전쟁 억제 계획이 우선’이라는 의견은 남성(67.3%)보다 여성(83.3%)이 더 많음
국민의힘 지지층(52.6%)·보수층(57.6%)에서도 ‘전쟁 억제 계획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앞섬
20대 남성층에서만 ‘확장 억제에 확실한 효과’란 응답이 ‘전쟁 억제 계획이 우선’이란 응답을 소폭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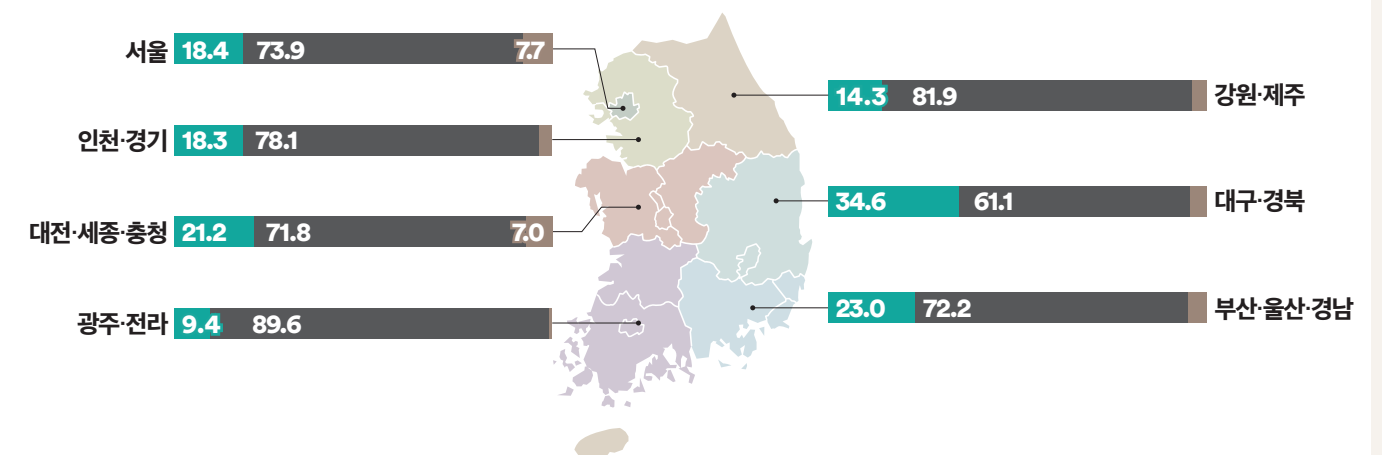
연령

18-29세	28.4	64.2	7.4
18-29 남성	48.1	45.1	6.8
18-29 여성	7.4	84.6	8.0
30대	25.1	71.8	
30대 남성	35.2	61.2	
30대 여성	14.4	83.2	
40대	12.9	83.0	
50대	10.6	85.2	
60대	21.9	75.2	
70세 이상	23.7	69.2	7.2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4.4		
국민의힘	43.6	52.6	
정의당	8.8	88.3	
기타 다른정당	8.7	91.3	
지지정당 없음	20.7	68.8	10.5
잘 모름	11.4	67.7	20.9

권역



확장억제에 확실한 효과 전쟁억제 계획이 우선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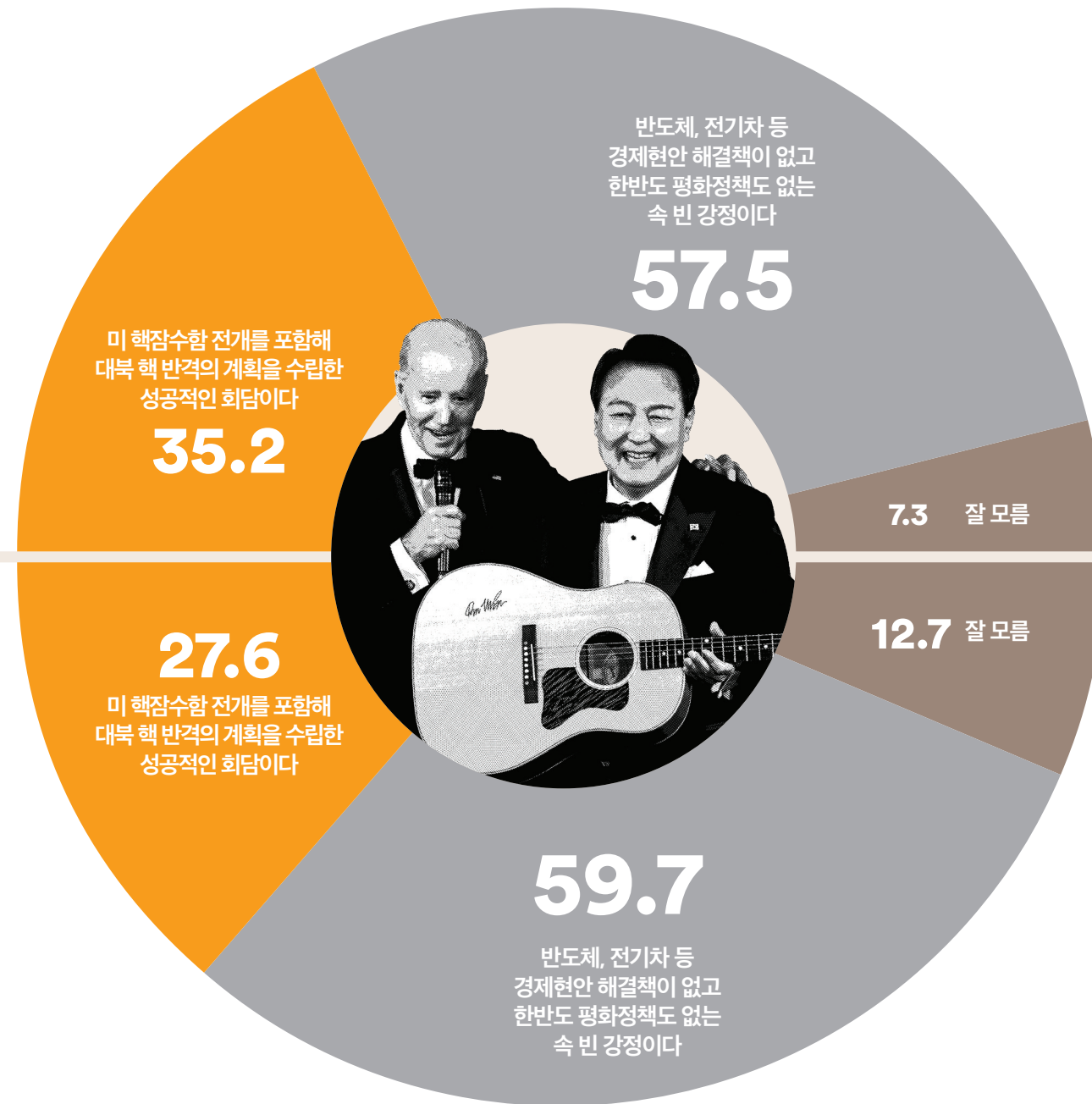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한·미 정상회담 평가

Q.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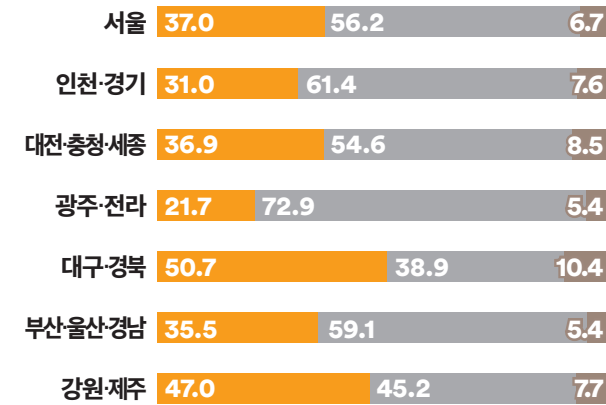


두 조사에서 모두 '속 빈 강정 같은 회담'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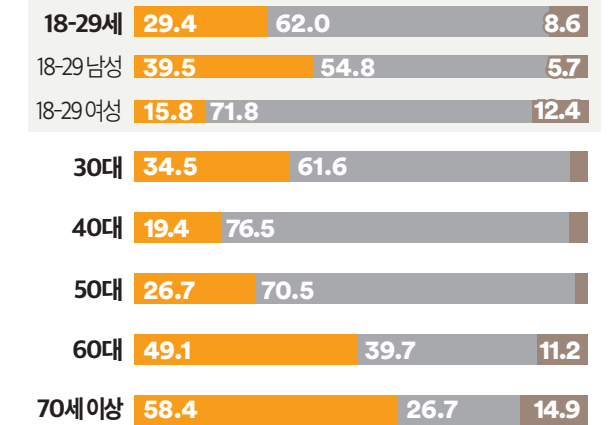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속 빈 강정 같은 회담'이란 응답, 70세 이상은 '성공적인 회담'이란 응답이 우세

CATI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ARS는 TK,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속 빈 강정 같은 회담'이란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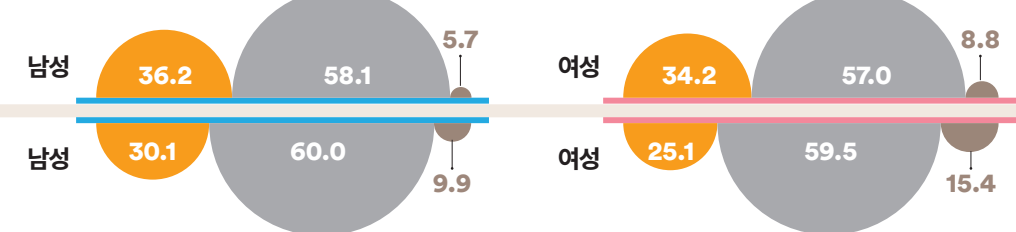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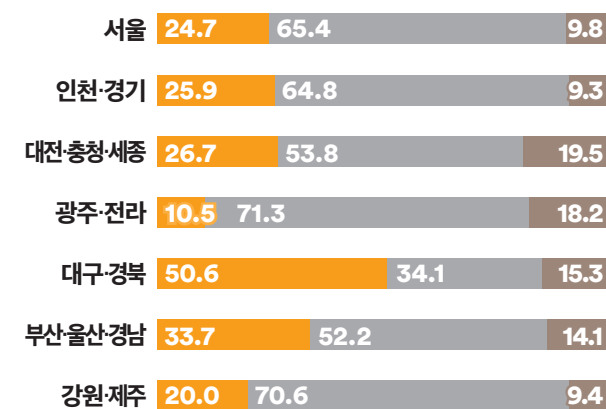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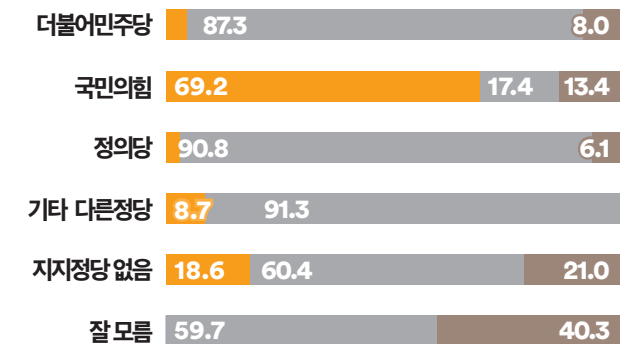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성공적 회담이다 속 빈 강정이다 모르겠다

여론조사팀



여론조사꽃 제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반도체 수출 금지 대응 / 쌍특검 / 전세사기

ARS & CATI / CATI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요청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쌍특검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말 것'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신경전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끼어있게 된 모양새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7일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쌍특검 국회 통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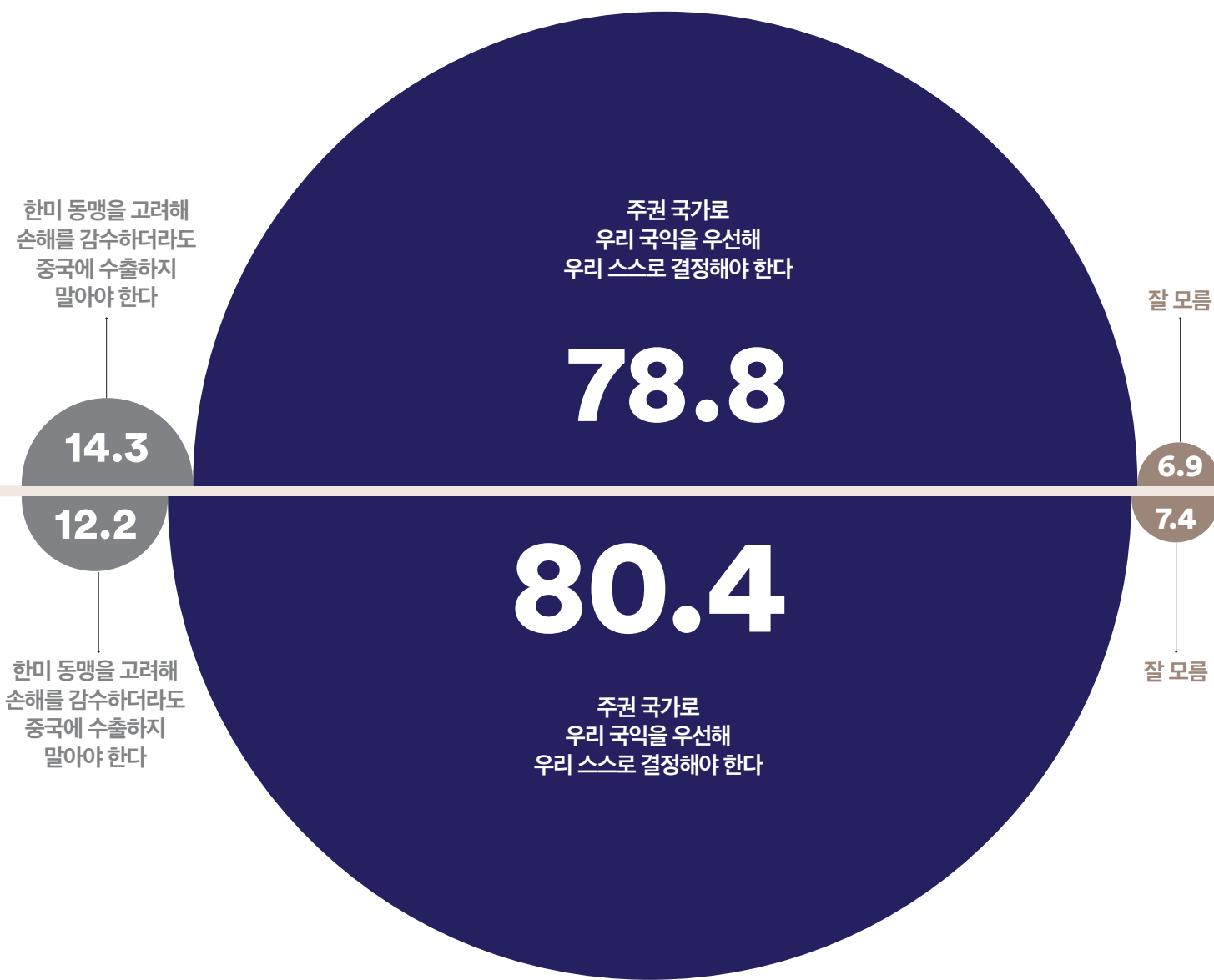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요청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Q. ‘중국이 미국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이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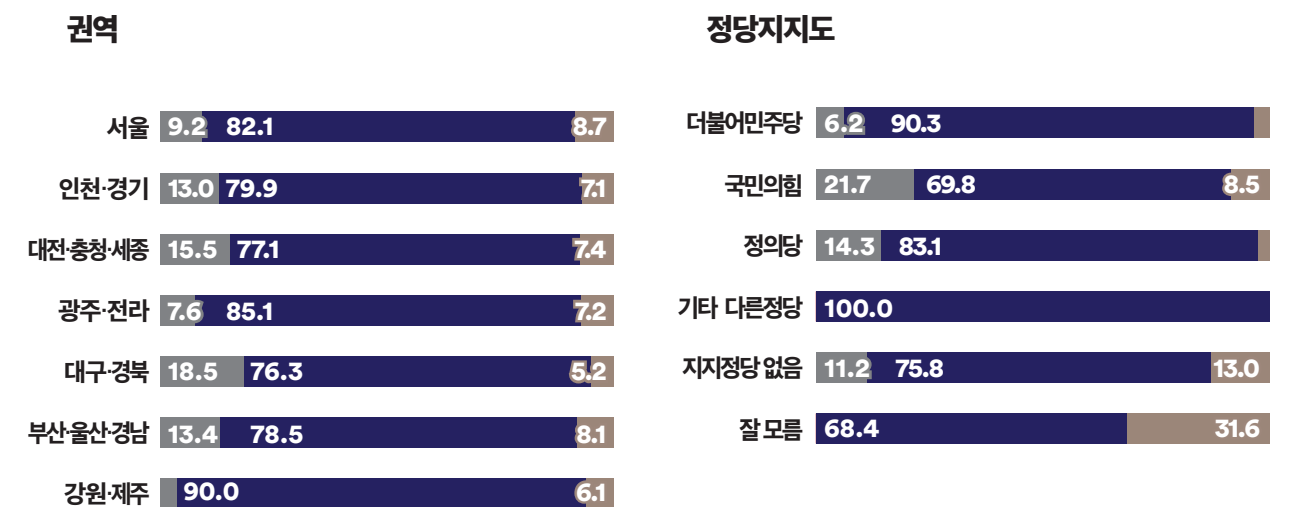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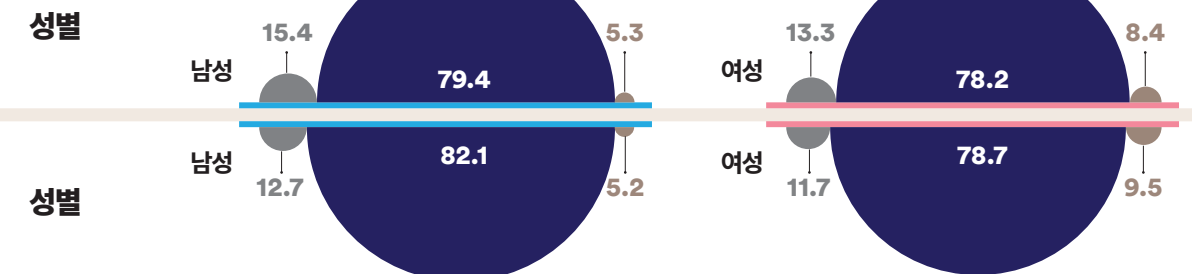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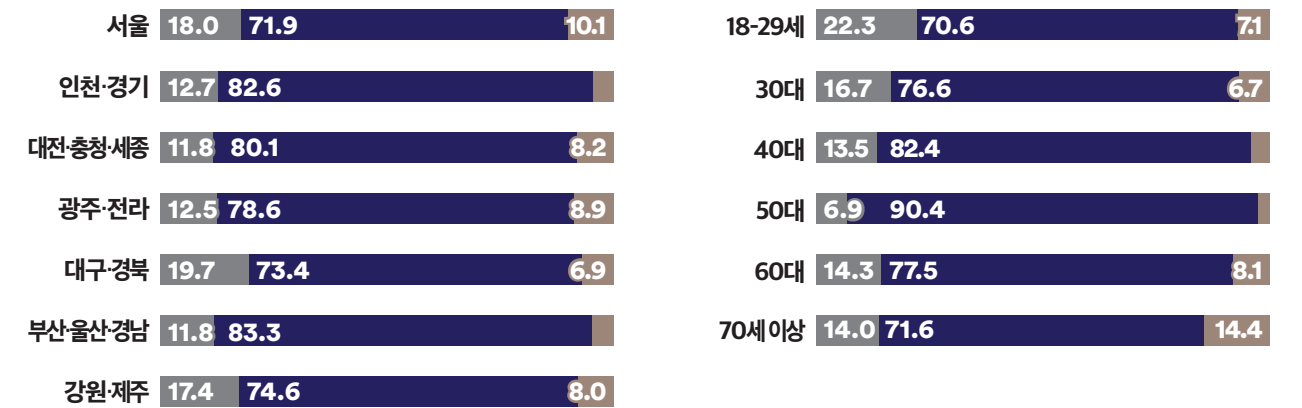


10명 중 8명 정도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우리 스스로 결정’이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ARS 63.0% / CATI 69.8%)과 보수층(ARS 65.2% / CATI 73.7%)에서도 압도적 우세

지난 조사의 중국/미국/러시아 외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 상식



한미동맹을 고려해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해 우리 국익을 우선해
결정해야 한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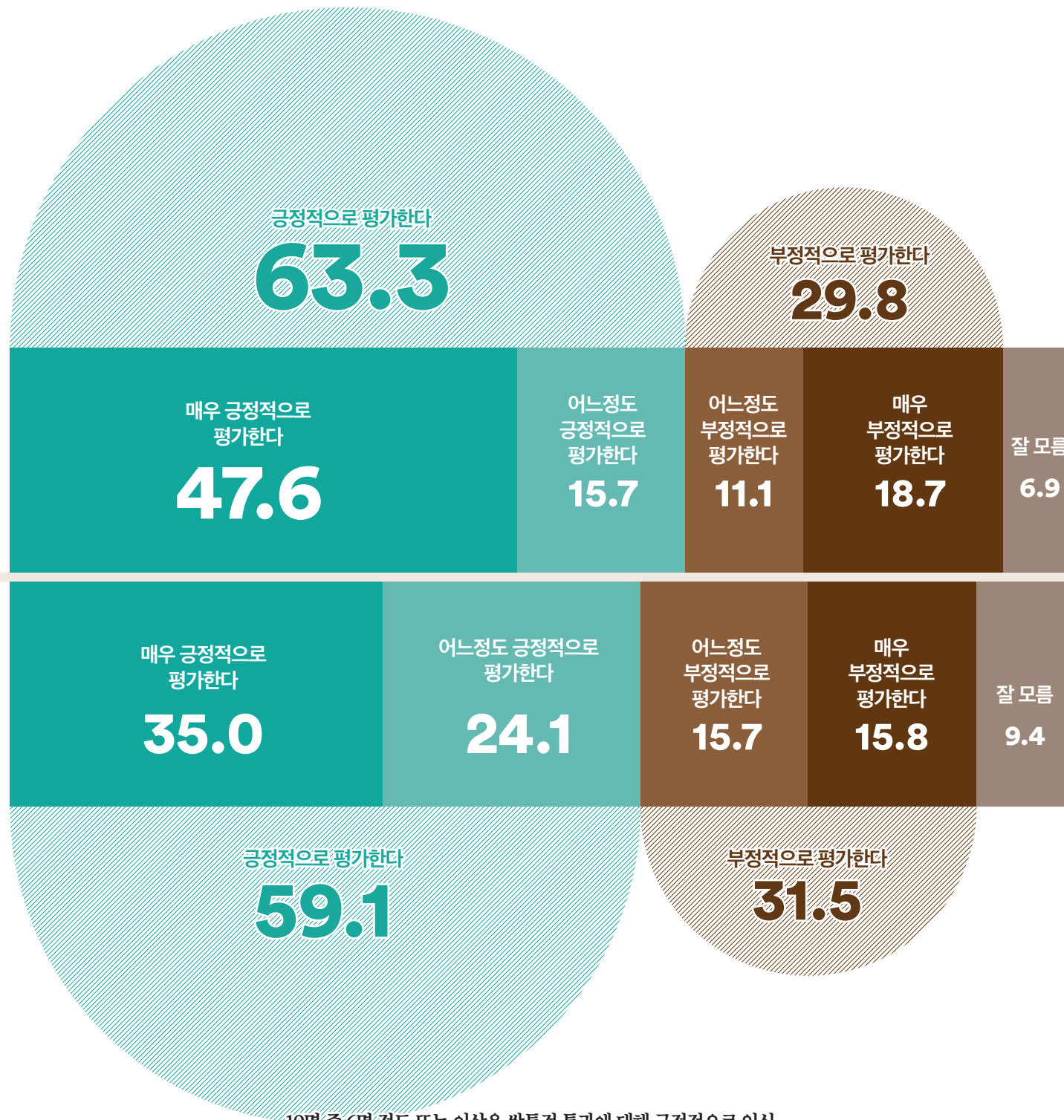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쌍특검 국회 통과

Q.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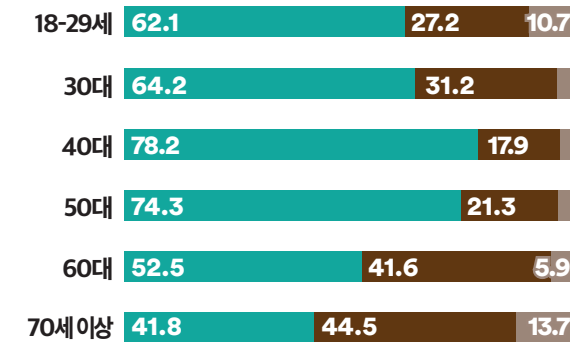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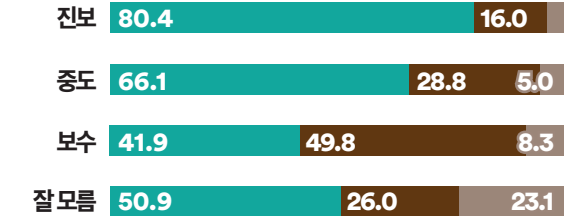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 또는 이상은 쌍특검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지역별로는 ARS (수도권, 충청, 호남, PK, 강원·제주, CATI(수도권, 충청, 호남)에서 '긍정적'이란 응답이 우세
중도층(ARS 66.1% / CATI 68.5%)과 무당층(ARS 71.1% / CATI 53.7%)에서도 쌍특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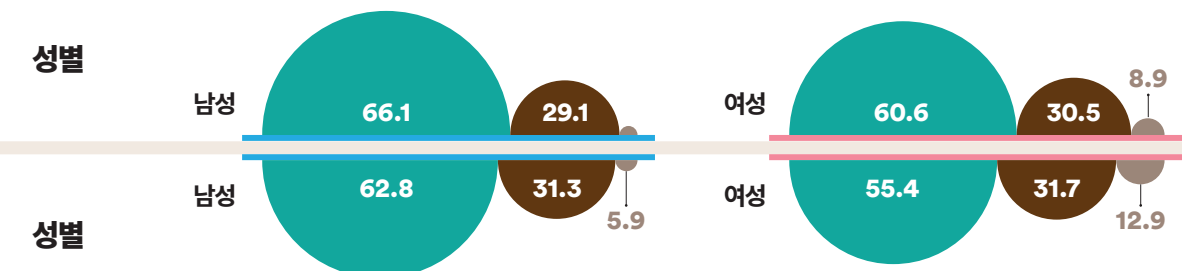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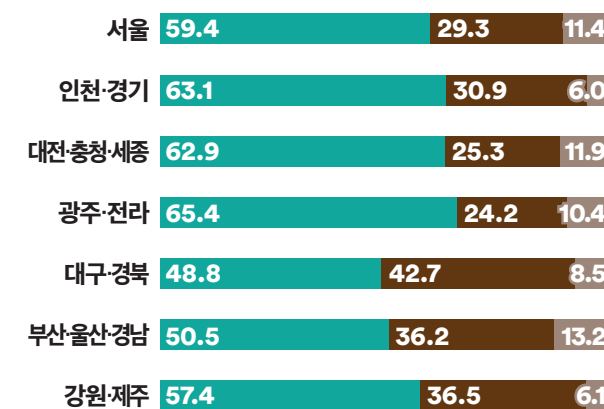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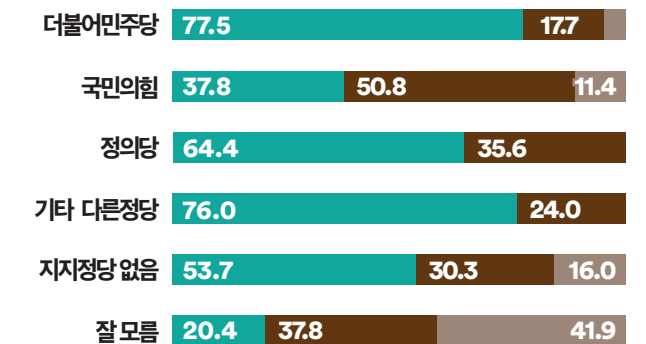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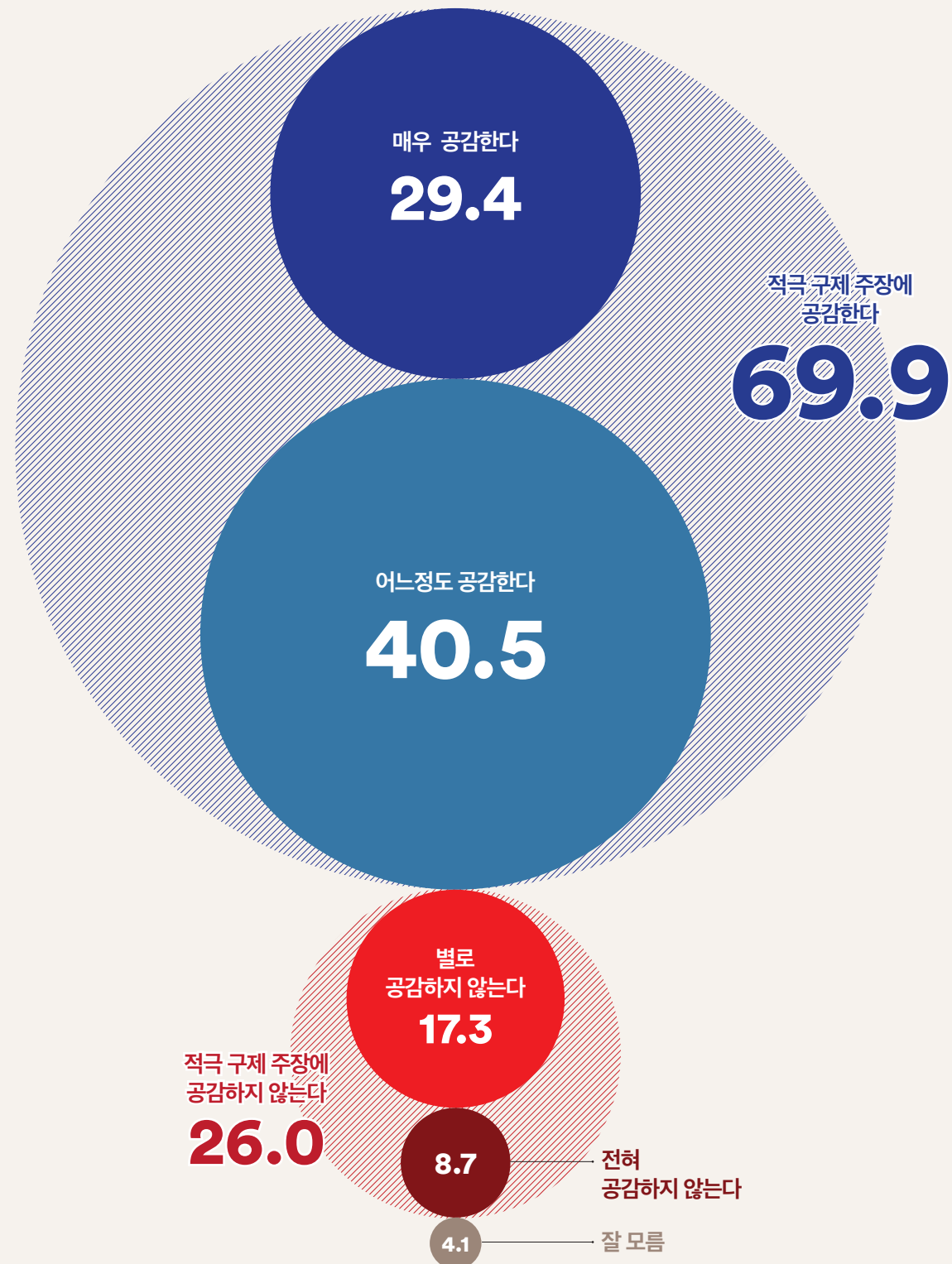
■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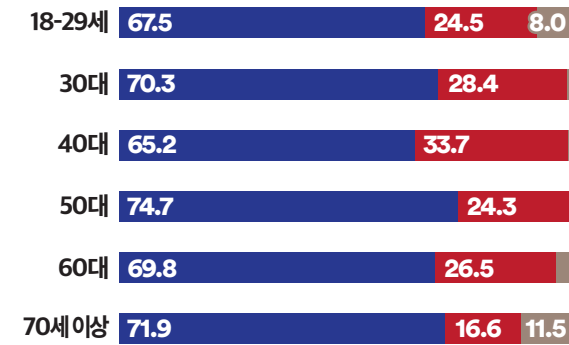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주장

Q. 정부가 공공 매입,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 등 재정 투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7명 정도는 '공감한다'고 응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대비 압도적 우세
모든 성·연령대·권역 및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진보·보수층 등 다수 변수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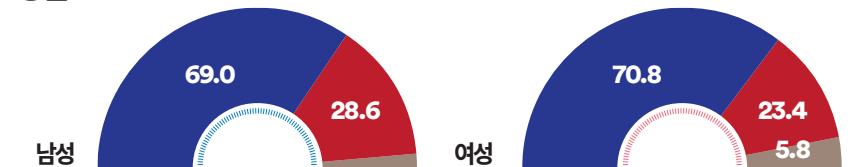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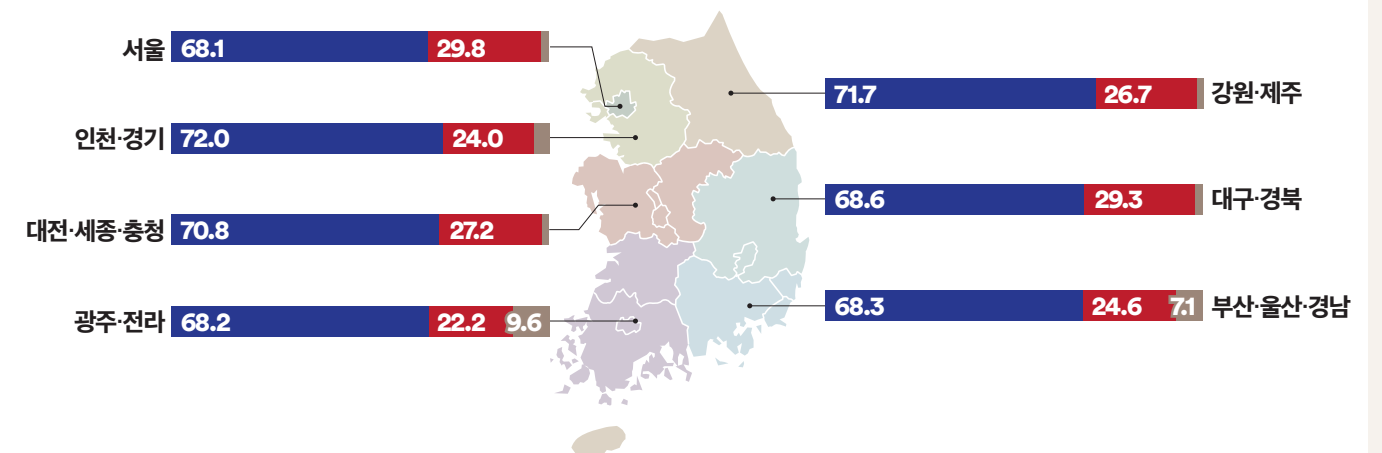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